

집회 / 교회
안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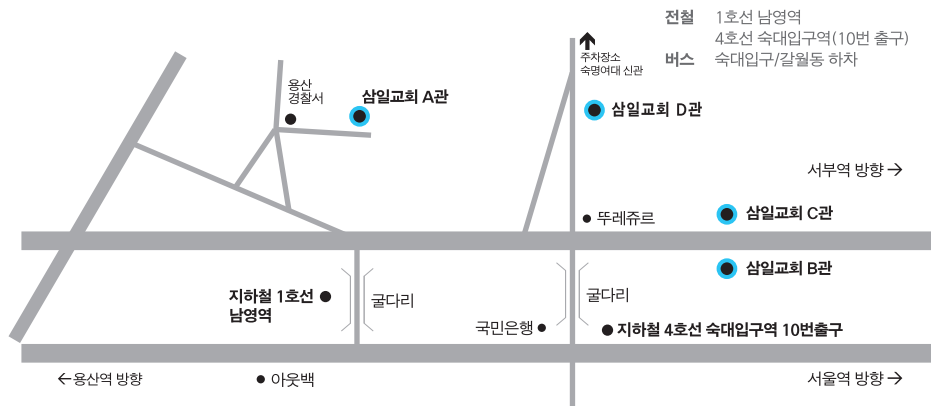
집회안내

집회	시간	장소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30 3부: 오전 12:00 4부: 오후 1:30 5부: 오후 3:00	삼일교회 B관 2층 (영어통역 3층) (중국어통역 3층)	영아부예배 (1~3세)	1부: 오전 10:30 2부: 오후 1:30	4층 영아부실
젊은이예배	6부: 오후 4:30 7부: 오후 6:00	삼일교회B관 2층 (영어통역 3층)	유아부예배 (4,5세)	오전 10:20 오후 1:20	7층 유아부실
주일 저녁예배	오후 7:45		유치부예배 (6,7세)	오전 10:10	7층 중예배실
수요예배	1부: 오후 5:00 2부: 오후 7:30		유년부예배	오전 10:10	4층 유년부실
금요침야기도회	오후 10:00	삼일교회 B관 2층	초등부예배	오전 10:10	4층 초등부실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2부: 오전 6:30		소년부예배	오전 10:10	C관 5층
			중등부예배	오전 11:00	C관 4층
			고등부예배	오전 11:00	A관대예배실
			새가족부	주일 낮 예배직후 토 오후 5:00	C관 1층 새가족부실
			리더교육		삼일교회 B관

6월에 배 봉사위원	6월 대표 기도 순서			봉헌위원	
	1부	2부	3부	1부	박동선 집사
	1주 임두호 집사	김경준 집사	주병옥 집사	2부	김희석 집사
	2주 박신찬 장로	이대규 장로	나원주 장로	3부	장구경 집사
	3주 이수관 집사	이윤석 집사	최승돈 집사	4부	장석면 집사
	4주 이광영 장로	이대규 장로	박신찬 장로	5부	이수관 집사
	5주 장구경 집사	남재희 집사	전세봉 집사	저녁예배	주병옥 집사

교회안내

B관	베다니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4 (청파동1가 삼일교회 교육관)	Tel 02.713.2660	Fax 02.3273.5297
A관	아브라함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호로 89길 18-19	Tel 02.711.4328	
C관	새물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5	Tel 02.703.4001	Fax 02.711.3126
D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34-2		
살림기도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철마산로 336-10	Tel 031.592.8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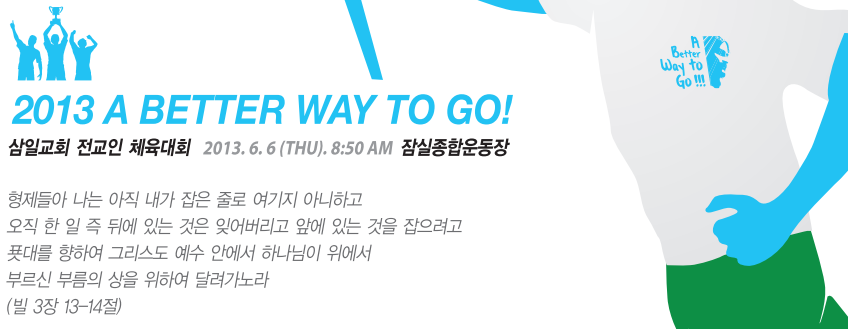
섬기는 분들

담당목사	송태근		장로	이광영	이대규	박신한	나원주
행정	강종욱목사	010-2546-7494	지휘자/	A 그룹	윤원준/ 장성개		
새가족부	염영선전도사	010-9213-0506	반주자	B 그룹	이진아/ 김상원		
				C 그룹	이근영/ 이다정		
				D 그룹	박운진/ 김다혜라		
주일학교	교육위원장 우상현목사	010-2405-4525		E 그룹	권경환/ 하민경		
영아부	박소금전도사	010-8431-3379		말씀	박사문/ 장홍주		
유아부	곽연미전도사	010-4529-0426		하늘	최대승/ 홍애리		
유치부	유한미전도사	010-9282-9784		저녁	장구경/ 박신영		
유년부	최강현전도사	010-9443-0753		수요 1	김현정/ 김주희		
초등부	서범준목사	010-4016-6428		수요 2	정광민/ 김혜민		
소년부	이성균전도사	010-3101-1673					
중등부	이규현전도사	010-2771-1464	직원	행정실장	황세원 010-4233-0688		
고등부	박수영전도사	010-2656-4584		전 산	박성순 010-6273-0072		
학원선교부	문정현전도사	010-2871-8480		사무행정	송호혜 010-2001-4458		
				사무행정	위 철 010-3437-7939		
대학청년부	1진 김현욱강도사	010-9441-8401		사무행정	전덕산 010-3861-4521		
	2진 이홍우강도사	010-9659-3591		일반사무	김진경 010-3056-5901		
	3진 김종철목사	010-4499-6266		일반사무	이선주 010-6449-2241		
	4진 이웅희전도사	010-6147-4448			(FAX : 3273-5297)		
	5진 이익주목사	010-8769-0191		영 상	정명현 010-9072-3745		
	6진 전영민목사	010-4855-5838			최용준 010-8665-2603		
	7진 이운준목사	010-2396-5253		을 향	조홍규 010-3776-4175		
	8진 김정호전도사	010-8264-0219		목 양 실	김정선 070-4264-9302		
	9진 양재현목사	010-5473-0698			(FAX : 070-8884-3125)		
	10진 김성태목사	010-2241-1950		A관 관리	남재희 010-2449-3593		
	11진 한혜욱목사	010-9078-1425		C관 관리	이상일 016-9444-2996		
	12진 조시환전도사	010-5555-4031		D관 관리	진병이 010-3955-9138		
	13진 김정안목사	010-2702-8039		기 도 원	이대규 010-8869-1702		
	14진 고석창목사	010-2834-7697		식당관리	이정희 010-4109-1489		
	15진 최성근목사	010-3444-8833		경 비 실	070-4264-9350		
	16진 이지혜전도사	010-5061-2880					
	17진 문승진목사	010-9428-9645					
	18진 전종국목사	010-2392-8061	기계실	전 기	장준호 010-8640-9514		
	19진 이은희전도사	010-8940-0241		설 비	남상준 010-4931-3593		
	20진 김수훈전도사	010-4570-2556		설 비	이승진 010-7770-2196		

신혼진	1진	강병희목사	010-9903-7198	선교사	진병두	일본	81-90-8116-9372
	2진	이희석목사	010-9166-5991				
장년진	1진	박두진목사	010-7310-3103	기관선교	박미진	대만	001-886-912203824
	2진	임형진목사	010-9184-3156				
	3진	안영민목사	010-3243-3559				
	4진	남수호목사	010-4190-0459				
						미얀마	010-2251-3749
						학원복음화협의회 한국선교동행가네트워크	

해외선교부	신용길목사	010-5113-9936	국내선교	이광현(영산교회) 이우근(제주토산교회)
P.O.P	권충한강도사	010-3036-1540	해외선교	신홍석(태국) 정운진(인·방·파) 오** (대만) 이영숙(일본) 필리엄김(동아시아) 이동현(미얀마) 임선희(나미비아) 남성길(브국)

삼일커뮤니케이션팀 : 고석창 목사, 윤보람, 정성균, 김은혜, 신민아, 박인미, 이문선



주일 1~3부 예배

설교 이한수목사 (사회: 박두진목사)
본문 히 13:12-16
제목 **“심자가, 변화된 세상의 의미”**
헌신기도 1부 임두호 집사 2부 김경준 집사 3부 주병욱 집사

주일 4~5부 예배

설교 신국원목사 (사회: 김정안목사)
본문 시8:3-9
제목 “사람의 가치”

주일 젊은이예배

설교 우상현목사
본문 시 137:1-9
제목 “성도가 울어야 하는 이유”

주일 저녁예배

설교 김종철목사
본문 창 22:1-12
제목 “미쳤거나 믿었거나”

수요예배

설교 서범준목사
본문 벤전 1:13-25
제목 “나그네 인생”

금요철야예배

설교 이의주목사

설교 월: 전종국목사 **화:** 신용길목사 **수:** 이윤준목사
목: 전영민목사 **금:** 고석창목사

church 저수지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일교회

Samil Church

저수지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일교회

담임목사 **송태근**

금주의 칼럼

고린도전서1 “고린도교회” (고전1:1~9)

왜 고린도전서 강해가 중요할까요? 한국교회가 직면해 있는 위치는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해 있는 위기는 고린도교회가 만난 상황과 복사판처럼 일치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시대에 세워야 할 교회의 모습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교회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고린도전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그 특성상 재정이 몰려드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부요했으며 빈부격차 또한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린도 도시 안에는 약 600미터 높이의 언덕에 세워진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상숭배가 성행하였습니다. 게다가 무려 1000명에 가까운 여사제들이 제사 드리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과 성적인 교합을 함으로 신과 접촉을 한다는 신학의 논리를 만들어 음란한 짓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설립되었을까요? 바울이 아덴에 머물다 고린도로 떠나게 됩니다. (행18:1,2) 바울은 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아덴에 머물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었습니다. (행17:16) “격분”은 바울이 화를 내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상장 하신바위가 질투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바울의 마음 속에 바울님의 질투가 묻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바울의 마음 속에 묻어 들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말 못하는 우상들이 가로채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투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들과 변론을 벌이다 쫓겨나다시피 하여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행17:16~18:1) 즉 사도 바울은 일정한 목적과 계획이 아니라, 상황에 떠밀려서 고린도로 옮겨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행18:2) 이 부부는 골라우도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자 고린도로 쫓겨와 바울과 만나 고린도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Q: 바울이 이전 사역지에서 쫓겨난 곳은 어디이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행17:16~18:1) 또한 고린도교회 설립의 동역자는 누구이며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행18:2~3) 말씀을 읽고 바울의 고린도교회의 설립배경에 대해 정리하며 발표해봅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을 '바울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고전 1:1) 바울은 왜 자신을 구지 '사도'라고 소개할까요? 교회도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에게 배웠거나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과 임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의 사도직 기원은 다대제 도상서에의 예수님의 만납입니다. 이방을 위해서 부른 종이라는 명령을 함으로써 바울을 사도로 부릅니다. (행9:1-19)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한 이유는 권세를 강조하기 위함 이 아니라, 자기가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너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Q: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의 사도직 기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행9:1-9) 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며 강조할까요?(고전1:1)

자신을 사도로 소개한 후,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고전1:2) 한 지역 교회가 지나치게 개교회주의로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적 교회’로서 공회라는 의미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직 하나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둘째는 삼일교회와 같은 각각의 ‘지역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 교회에 대한 개념을 모두 견지해야 합니다.

Q: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고전1:2) 교회의 두 가지 개념을 확인하며 답변해봅시다.

그래서 한 성도와 한 교회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하여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실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망가지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회복하려면 교인들의 신뢰와 교회에 대한 교회의 잘못을 다시 지적izzi 말아야 합니다. 한국이 카피하고 있는 미국교회가 세속화의 물결을 따라 교회의 성공을 성도들의 머릿수와 재정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탁월한 수사력을 가진 설교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미국교회가 그 시마리 복음적이나 아니냐라는 상관없이 그저 목사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기밀의 경영 논리를 그대로 따라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관점은 철저히 청중의 필요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교의 출발점은 청중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중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가 되어야 합니다.

Q: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필요에 따라 듣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가 답변하고 설교를 들을 때의 바른 태도를 확인해봅시다.(행17:11)

고린도 교회도 도시의 분위기를 따라 성공주의 복음, 효율, 효과 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그런 비복음적인 문화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교회의 원형을 전합니다.

